



## 인터뷰

취임 1주년 이광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이광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지난해 1월2일 부임 이후 '희망 농업, 행복 농촌'이라는 비전 아래 전남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경영을 이어왔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이 본부장을 만나 지난 한 해의 성과와 2026년 추진 방향을 들어봤다.

## “부족한 농촌 일손 해결 등 체감되는 변화로 농업 살린다”

## ▲취임 1주년을 맞은 소회는?

- 지난 1년은 전남 농업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한 시간이었다. 농업인과 농축협 임직원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며 농업이 처한 어려움과 그럼에도 농업을 지켜내려는 강한 의지를 동시에 느꼈다. 격려와 응원도 많았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는 따끔한 조언도 적지 않았던 만큼 그 모든 목소리가 전남농협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고민하게 했고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이어졌다.

지난 한 해 농축산물 생산과 판매를 넘어, 농업인의 삶 전반을 살피는 데 힘을 쏟았다. 농축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과 판로를 넓히고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와 농작업 대행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해피버스데이, 농촌왕진버스 등 복지 사업을 통해 의료·문화·생활 서비스를 농업인에게 직접 제공하며 '찾아가는 농협' 역할을 강화했다.

이러한 성과는 전남본부만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닌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한 농업인과 농축협 임직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로 농협전남본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과 업무의 출발점으로 삼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 ▲ 지난해 농협전남본부의 주요 성과는?

- 지난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이다. 농업인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이 가치를 기준 삼아, 전남본부의 모든 사업과 현장 활동을 다시 정비하고 실천에

나섰다. 농심천심 공감포럼을 통해 144개 농축협 조합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전남농협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1농협 1대표사업'을 통해 각 농축협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154건의 대표사업을 발굴했다. 이를 지역 소득 사업으로 육성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

“

'찾아가는 농협' 현장 중심 경영 강조  
작년 1농협 1대표사업으로 지속 성장  
인력증강센터·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이와 함께 35년 만의 일본 쌀 수출을 성사시켰고 CJ제일제당과 GS리테일 등 대형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판로를 넓혔다. 범국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해 한때 크게 하락했던 산지 쌀값 회복에도 힘을 보탰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도 농업인에게 작은 희망이 됐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폭우와 폭염 등 재해 앞에서는 전남농협의 모든 역량을 현장에 집중했다. 무이자 재해 자금 지원과 성금, 구호품 지원은 물론 임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복구에 힘을 보탰으며 농업인의 삶의 터전을 함께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대

응했다.

▲ 2026년 전남농협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향은.

- 한마디로 말하면 '체감되는 변화'다. 농협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분명히 느끼고 농업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말이 아니라 숫자와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현장 적응을 돋우고 교육도 20회로 확대해 "인력은 들어왔는데 현장



적응이 어렵다"는 불편을 줄이겠다. 여기에 농촌 일손돕기 8만명을 목표로 하고 대학생 재능 기부 학교도 4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해 농업 현장을 더 촘촘하게 지원하겠다.

결국 농업인이 체감하는 변화는 "사람이 구해졌는가? 비용은 줄었는가? 작업이 제때 됐는가?"인데, 그 지점을 분명하게 드렸겠다.

농촌은 의료·복지·문화 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한 곳이 많다. 전남농협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농촌의 삶의 질을 직접 끌어올리겠다. 농촌왕진버스 70회(1만8천명), 해피버스 등이 10회(4천명)로 확대하겠다. 복지·재능기부·문화공연 등과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농촌으로 직접 가져오는 방식을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 이런 활동은 농업인의 생활을 돋는 것을 넘어, 농촌이 더 살기 좋은 공간이 되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 끝으로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 새해를 맞으며 '동심협력(同心協力)'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겼다. 농업은 농업인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밥상과 지역 공동체, 국가의 식량안보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농업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역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실천이 있다. 어렵지 않는 실천으로 아침밥 한 끼는 우리 살로챙겨 드시고 장을 보실 때 우리 농축산물을 한 번 더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 그 작은 선택이 농업인의 소득이 되고 농촌의 활력이 된다. 전남지역본부는 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동심협력의 마음으로 한 걸음씩 더 단단히 나아가겠다. /안태호 기자

## 전남 난대숲, 겨울에도 피톤치드 발산

산림研, 황칠·생달·붓순나무 연구·분석

전남도산림연구원은 7일 "2025년까지 2년 동안 지역 난대숲에서 피톤치드(NVOC) 발산추이를 분석한 결과, 황칠, 생달, 붓순나무 등 3개 수종 모두 겨울에도 항암·항알레르기·항균물질을 다양 발산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발산하는 천연 휘발성 유기화합물(Natural Volatile Organic Compounds)로 항균, 피부질환 개선,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다.

이번 연구는 난대수종인 황칠나무, 생달나무, 붓순나무를 대상으로 매월 현장에서 일·기지에 직접 테이프백을 씌워 나무가 발산하는 성분을 포집하는 방법을 활용, 피톤치드 발산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여름철에 가장 많은 양인 400ng의 피톤치드를 발산했으며 가을·봄·겨울철은 거의 유사한 양인 190.8ng, 164.7ng, 154.3ng으로 분석됐다. 난대숲의 특성으로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도 일정량의 피톤치드를 발산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수종별로는 생달나무는 봄(197.6ng)과 가을(236.1ng)에, 붓순나무는 여름(660.8ng)과 겨울(247.9ng)에 발산량이 높았다. 특히 붓순나무는 다른 2개 수종에 비해 여름철에는 15~22배, 겨울철에는 23배 많은 양을 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톤치드 성분별로는 알파피넨, 베타피넨(면역력강화·스트레스감소), 리나(항균·항염), 발렌센(항알레르기) 성분이 많았다./양시원 기자

## 새해 목포서 전남지역 농협생명 종신보험 1호 가입

60대 남성…목포농협서 감사 행사

신보험이다. 납입기간을 2개로 구분해 제 1납입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제 2 납입기간에는 제 1납입기간의 10%만 부담한다.

또한 노후자금설계전환특약을 통해 계약자 적립액을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전환용사망이음NH종신특약을 통해 피보험자를 기존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변경 가능 한 것이 특징이다.

윤점숙 농협생명 전남총국장은 "올 한 해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수익형 전원마을 담양송이마을 토지분양**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스마트팜 설비로 누구나 참송이버섯 재배 가능 | 참송이버섯 재배로 매월 안정된 소득

체류형 쉼터 / 세컨 하우스 / 주말농장 / 개인캠핑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창고부지 등 입주 가능

각 필지 8m도로 접. 토목공사. 기반시설. 250평 분양(전용률80%) 분양가 : 3.3㎡/45만원

1차 분양 입주완료  
2차 토목공사 완료 - 선착순 위치선택

송이마을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31-6번지 ☎ 062)222-0037 / H. 010-4323-5252